

그때 그 느낌, 양 시장 서킷브레이커

[Market Analyst] 강진혁 선임연구원 ☎ (02) 3772-2329 ✉ kjinhyeok@shinhan.com



AI 수익성 우려 지속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KOSPI, KOSDAQ 각각 7.6%, 7.7%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투매와 얇은 수급, 이어진 반대매매 출회는 지난 7월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美 9월 CPI(+3.7% YoY) 예상치 상회했지만 10Y 5.32% 터치 후 5.1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히려 AI CapEx 사이클과 신용 우려에 금리·주가가 함께 빠지며 양 시장 7/29 이후 동반 서킷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AI CapEx의 타인자본 의존도 증가로 금리 민감도 커진 상황에서 대표 취약 업종인 네오클라우드 CRWV(-15.5%)의 32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14.8%까지 오르며 자본 조달 우려 자극했습니다. Anthropic·TSMC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각각 성장성과 CapEx가 자본 제약이라는 포인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은 반도체 중심 투매 나왔습니다(삼전 -9.5%, 하닉 -11.1%)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 100여개

간밤 미국에서 기술주 부진한 동안 필수소비재·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KOSPI도 삼성전기(-15.4%)·전력기기(효성重 -14.7%) 등 AI 밸류체인 약세였고 바이오(삼성바이오 +5.5%, 셀트리온 +1.3%)로 순환매 유입됐습니다. 금융(하나 +0.7%)·통신(KT +1.2%)·음식료(KT&G +4.0%, LG생진 +1.9%) 등 일부 방어주 선방하며 113개 올랐습니다.

#특징업종: 1)사이버보안: 라온시큐어(+14.0%, 정부 퍼지컬 AI 보안 과제 주관)·에스원(+13.9%, 4,500억원 자사주 매입) 2)우주: Rocket Lab, 신형 로켓 Neutron 발사 내년 연기(스피어 -12.1%) 3)신규상장: 진코스텍(-37.4%, 화장품 ODM)·멜콘(+42.0%, 반도체 공정) KOSDAQ 상장

7일 만 20% 하락, 이익 전망의 정당화 필요

KOSPI 7일 연속 하락하며 누적 낙폭 2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0년(9일, 17.5%), 08년(8일, 17.7%), 11년(6일, 17.1%), 20년(7일, 25.7%) 등 급락 사례를 보면 급락이 반드시 반등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08)·팬데믹(20)은 빠른 정책 대응으로 반등에 성공한 사례이나 닷컴 버블(00)·美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위기(11)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닷컴 버블은 현재와 유사하게 급락기 전후로 EPS 추정치가 상향됐지만 그보다 PER 하방 압력이 강해 지수가 눌린 사례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 전후 AI 자본 제약이나 이익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장기 디레이팅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선결조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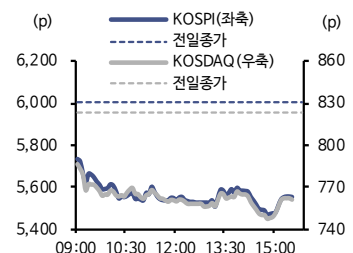
#주요일정: 1)EU 정상회의의 2)美 9월 PPI(21:30)·소매판매(21:30)

주식시장 지표

구분	KOSPI	KOSDAQ
종가	5,554.22 (-7.57%)	760.81 (-7.66%)
상승 종목	113(↑12)	110(↑15)
하락 종목	789(↓10)	1591(↓11)
주체별(억원)	KOSPI	KOSDAQ
개인	12,886	-669
외국인	-36,341	2,177
기관	16,930	-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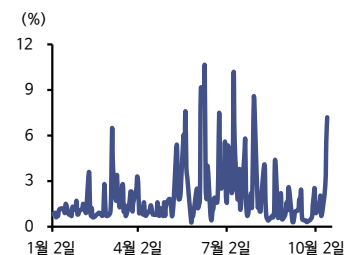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KOSPI, KOSDAQ 장중 흐름



자료: Infomax, 신한투자증권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비중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강진혁).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